

‘다도해 전남’ 섬 도대체 몇개?

기준 달라 정부·도·시군 집계 제각각

도, 5억 들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발주

섬이 1004곳이어서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의 실제 섬 개수는 1025곳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880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섬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실제 현장 조사가 면밀하게 실시된 적이 없어 정부는 물론 전남도, 각 시·군의 집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안은 지역 홍보 차원에서 부르기 쉽게 섬 숫자를 ‘조정’해버리기도 했다.

민선 6기 브랜드로 ‘가고 싶은 섬’을 내건 전남도가 10개년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우선 햇갈리는 섬의 개수, 현황과

약, 섬 투자유치 조건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최근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재 자료들마다 섬의 개수가 불일치해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섬은 신안 880개, 여수 365개, 완도 265개, 진도 256개, 고흥 230개, 해남 71개, 영광 62개, 무안 28개, 보성 21개, 장흥 14개, 목포 11개, 강진 8개, 광양·영암 3개, 순천 2개 등 모두 2219개다. 이 가운데

무인도가 1923개, 유인도는 296개다. 전남도는 섬의 기준을 말뚝과 썰물 상관 없이 수면 위에 존재하고, 흙과 식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신안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08년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조사를 하면서 바위만 있어도 섬으로 했다.

중앙정부 역시 섬 통계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 국토해양부는 유인도를 관리하고 그 중에 특수상황지역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 따라서 섬의 개수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기상이나 선박편 등의 문제로 현장 접근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7년째 계속하고 있다. 해수부는 전남도가 조사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할 정도로, 섬 개수 파악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어서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섬 개수를 공식화해 표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명품섬 개발을 위해 후보군 저체조사로 27개, 각 시·군 추천으로 5개 등 32개를 골라내 이 가운데 29개로 압축한 뒤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개발이 제한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보호구역 등에 포함된 섬이 많아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비정규직 600만 넘었다

지난해보다 13만명 증가...임금·복지 정규직과 격차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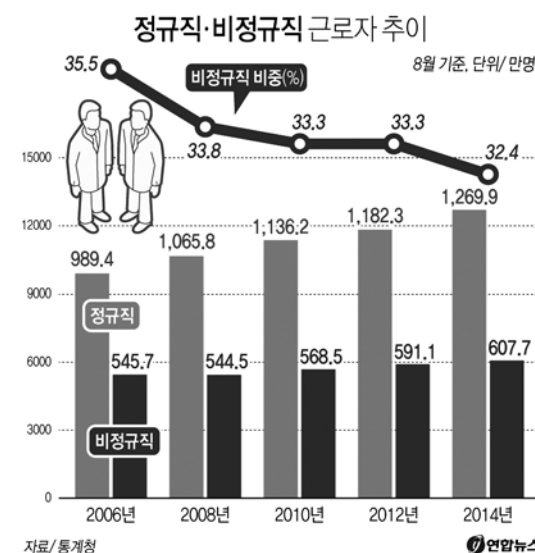
그러나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 중심으로 비정규직 늘어=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000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유형 중 ‘시간제 근로자’가 20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천명(7.9%)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조사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란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다른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가 35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2.2%) 늘었다.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1만2000명으로 10만2000명



(-4.6%)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53.5%)의 비중이 남자(46.5%)보다 높았다. 연령계층별로는 40대(21.3%)가 가장 많았고, 50대(21.1%), 60세 이상(19.5%), 20대(17.9%), 30대(17.2%) 순이었다.

◇비정규직, 임금·사회보험·복지 더 열악해져=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3만1000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했다. 정규직의 임금 역시 260만4000원으로 2.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연합뉴스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렸다. /제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도 부단체장 늘려달라” 시·도지사협 제주서 총회...조직 운영 자율성 보장 촉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부단체장 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제주에서 제31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

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안전 분야 자원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세 신설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왔던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기준을 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예우하는 건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의전을 격상시켜달라는 요구였는데 영통하게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광역자치단체장이 겨우 ‘장관급’밖에 안 되는 것이냐는 논란으로 변질된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나가던 전남 막걸리 ‘주춤’

지난해 98개 업체 중 7곳 폐업·매출 68억 감소

내일 ‘막걸리의 날’

“잘 나가던” 전남도의 막걸리가 지난해부터 주춤거리고 있다. 오는 30일 ‘막걸리의 날’(10월 마지막 목요일)을 앞두고 전남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막걸리 붐’이 일었던 지난 2012년 도내 막걸리 업체 수는 98곳에 매출액은 258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7곳이 폐업하고, 매출액도 68억원이 감소한 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에는 89개 업체가 막걸리를 생산해 108억원을 벌어들였다.

지역 막걸리 업체 가운데 지난해 강진 병영주조장에서 생산한 막걸리가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해 2억원을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전남도는 막걸리와 함께 전통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11개 업체에 자부담 17억9600만원 등을 포함해 44억 9000만원을 투입, 제조시설 현대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2억 4000만원에 불과해 영세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9년부터 남도 술 품평회를 매년 개최하고 이달의 남도 전통술을 선정하는 등 전남 막걸리 알리기에 적극적이다. 친환경 막걸리 생산 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만월’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술 품질보증 제도를 실시 9개 업체 18개 제품을 선정하는 등 고급화 전략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김태환 식품유통과장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품질에서 월등한 전남 막걸리의 업그레이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텍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해너트 복합치료
- 아드름 레이저: 스무스원,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 피부 미백: 켈로맥스, 디오모우즈
- 피부 미백: 루미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 주름·흉터: 프락셀, 울트라펄스임플로, 프렉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세너
- 모공: 변티지, 프락셀5종
- 비만: 네오슬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